

연중 제10주일

제 1독서 : 창세 3, 9-15  
제 2독서 : 2고린 4, 13-5, 1  
복 음 : 마르 3, 20-35

# 순정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르 3, 35).

## 강론

### “외로운 외길 인생의 예수님”

전 대 복 신부 / 조촌동 천주교회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외로운 외길 인생을 더욱 드러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먼저 가장 가까운 친척들(어머니와 형제들 : 31절)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지 않았음은 물론 고향과 친척, 직업을 버리고 정처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붙잡아 고향으로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려고 몰려왔던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율사들과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마귀들린 사람 혹은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빈정거리는 경향에 혼자 외롭게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당신이 먼저 철저히 실천하신 분이요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도 실천하도록 가르치러 오신 분이기에 조금도 주위 상황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당신의 하실 말씀을 하신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어떠한 사탄의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한 것임을 여러 가지 비유로 친절히 설명해 주신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당신 자신(예수)까지는 믿지 않거나 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으나 당신의 하시는 일(성령의 일)까지 거부하거나 욕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장차 성신강림과 더불어 세상 종말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의 탄생까지도 예견하신 말씀이 아닐까.

인류 구원의 원대한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친지, 부모, 형제보다도 앞선다는 예수님의 지독한 가르침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 마음에 확실히 와 닿을런지...

## 소리

### “부도덕을 어찌할까?”

한 문명이 무너지는 데는 전쟁도 필요치 않다고 한다. 제 속이 썩어 넘어지면 그 문명은 끝난다는 것이다. 그 예가 로마제국이다.

팔레스타인 좁은 땅 한쪽에서 일어난 그리스도교가 내부로부터 썩은 로마제국을 이기고 만 역사에서 우리는 오늘의 세상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거울에 비추듯 잘 볼 수 있다.

오늘의 세계는 미국이라는 제국(꼭 황제가 지배한다고 해서만이 아니다)이 전체적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어느 이 세상의 나라들보다 더 필연적으로 철저히 미국에 간섭받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도덕적 차원이 기침을 하면 우리의 도덕적 현실은 독감을 앓는 식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미국의 폭력 숭배주의가 우리나라의 군사문화를 살찌우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회는 폭력의 악순환이 풀 길 없을 정도로 되풀이 되고 있다.

미국과 백년 넘게 관계해온 역사를 거부해버릴 수는 없을지라도 자각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각은 깨어 있는 국민의 어떤 ‘총’에서 해낼 몫이다. 그리스도인도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도, 심지어는 양심을 하느님이라는 창조주께 늘 봉헌하는 그리스도인마저 책임지지 않고 있는 듯 보이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부도덕함을 어찌해야 할까?

그 값진 순교자들의 유산과 순교신심은 왜 언제나 오늘이 아닌 어제의 일로만 느껴야 할까? (순교마저 폭력 행위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성심성월에 양심 청소를 좀 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 ☒

### 순정이 산책



높고 넓은 예수성심

생명 공동체 운동 ①환경오염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지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으며(시편86 참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창세1,31)이어야 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형제적 관계로서 사랑을 기본법으로 하여 나누고 협동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극도의 억압과 분열, 파괴와 오염으로 얼룩져가고 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빚어낸 산업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에 의해 독점과 분열이 만연하고, 자연·생태계의 파괴, 자연자원 고갈, 핵의 위협,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분명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는 반생명적인 죽임의 질서이다.

지난 90년 1월 1일 교황 성하께서는 ‘평화의 날’ 담화문을 통해 세계 평화가 군비경쟁과 지역분쟁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마땅한 존중의 결여, 자연자원의 피폐 등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각성에 의한 국제적 차원의 새로운 연대, 생활양식의 변화, 교육의 혁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 모두가 살아 남기 위하여 더 이상 생태계의 위기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지구에 처해 있는 공해, 자연 생태계는 어떠한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방출되는 탄산가스가 지구에서 우주로 방사되는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구의 기온 상승은 1백년 전보다 0.6도 높아졌다고 한다. 앞으로 기온의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 다음 세기 말에는 평균 기온이 2.5~5.5도 상승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위협한 자외선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은 구실을 하는 오존층의 파괴다. 파괴의 주원인 물질인 염화불화탄소는 화학적으로 대단히 안정된 물질로서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 분무추진제, 반도체 산업에서 정밀부품의 세정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염화불화탄소 방출량을 줄이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은 빠른 시일 내에 파괴되어 인체에의 손상은 물론 자연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구적 규모의 환경오염 중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산성비로 인한 환경 생태계 파괴이다. 대기중에 과다하게 배출된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이 비에 씻겨 내려와 PH 5.6이하의 산성비를 만드는데, 이러한 산성비는 식물의 세포 조직을 직접 파괴할 뿐만 아니라 토양 중의 영양 물질을 씻어가 농작물이나 숲속의 나무들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토양이 산성화되며 호수의 물이 산성으로 되어, 수확이 감소하고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된다. 지구의 오염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오염, 지하수의 오염, 쓰레기로 인한 오염 등 어느 한 곳 온전한 곳이 없을 지경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의 잘못된 물질 중심, 인간 편리 중심의 가치관과 산업문명을 발전시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면 행복해질 것으로 믿고 오직 앞만 보고 줄달음쳐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해로 인한 가해자는 큰 공장을 가진 대기업이고 피해자는 노동자, 농민이다.

고소득자인 기업 경영자는 소음이나 진동, 대기오염이 적은 고급 주택 지역에 살고 식수는 자기 집에 깊게 판 지하수나 깨끗한 천연 식수를 마시고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무공해 쌀 등의 식품과 수입된 영양가 있는 식생활을 하고 병에 걸리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할 경제력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가난한 도시 근로자나 농민은 언제나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살아 남기 위해서 자기만 좋아지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후손에게 안정된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이제까지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고 새로운 생각과 삶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셋째,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 세상 우주만물은 하나의 생명체이다. 한 그릇의 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흙, 공기, 물, 바람, 태양, 별, 달, 벌레, 농민 등 전우주 생명체의 협동활동이 있어야 하듯이 세상 어느 것 하나 홀로,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하늘을 나는 새가 없이, 풀이 없이, 지렁이가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수단화되어 온 자연과 이웃, 전체 생명체와의 화해를 위해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 이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이다.

넷째, 공해문제 해결에 왕도(王道)는 없다. 밥상에서 미원을 몰아내고 생활 속에서 합성세제를 몰아내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삶의 길은 열린다. 그리하여 밥상에서부터 가정생활, 우리 동네, 전체 사회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은 자기 아픔이 있어야 하고 자기 결단을 요구한다. 이제까지 굳어진 생각과 생활방식을 고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은 혼자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이다.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제공〉

홍부의 정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눌부보삼**

오재천 (안드레아)  
정봉교 (마리아)  
효지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 ~ 8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 · 생활용품



**중양동대리점**

관동로 진신미 꽃집 옆  
☎ 84-8725  
범덕배 (디오)

**우리전투**

모범업소 (조리사의 집)

박성환 (조기리아)  
김성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앞)  
☎ 85-8848

**삼익악기동서로판매장**

피아노 · 교회용전자올렌  
관 · 현악기면세판매  
(각종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상담)  
김태우 (일봉소)  
황진숙 (의정리)

관동로 다가교 옆  
☎ 88-7717, 88-7718

잡 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

- 삼례 본당 : 최방지거(병운), 김루시아(복순) 부부 -

지난 부활 대축일 미사 후 이들 부부는 그동안 삼례 제2성당 부지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교회(삼례 본당-김봉희 신부)에 땅 500평(짓가-2억원)을 기증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듯싶다. 시골의 조그만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또 언제나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이제껏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시며 이름 밝히기를 거부하시는 이분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삼례 성당 설립(1951년) 이후 30년 동안이나 회장직을 맡아 지역 복음화에 헌신해 왔기에 1987년 교황 십자가 훈장까지 받은 회장님, 초기 본당이 어려웠던 시절 본당 운영비 10/1을 부담하면서 여러 신심활동을 통해 오직 선교에 정열을 쏟아 대자대녀의 수를 알 수 없다는 이들 부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슬한 우여곡절도 많았겠지만 지금 이들 부부에 대한 칭송이 교회 안팎으로부터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희생해서라도 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이분들은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루가 12, 34).

요심이 (931) 김병오



“나자렛 예수 재매회”성소자모집

마산교구에서는 교구 설립25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수녀회를 창설하고 봉어촌 선교 및 공소사목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에 나서고자 합니다. \*활동: 봉어촌 선교 및 공소사목, 사회복리시설 운영, \*입회자격: 만30세 미만의 고교 학력 이상인 자로서 영세한 자 3년 이상 경과된 신일이 확실하고 건장한 미혼여성. \*문의처: (635-950)경남창녕군 성안면 공룡 2구 206번지

유 봉 호 (바르톨로메오) 신부  
☎ (0559) 32-6295

새성전 은인 구할

- 성화동 새성전에 필요한 비용 은인을 찾습니다
1. 제대벽화 (크레소브화): 500만원
  2. 제 단 (도 자 기): 200만원
  3. 창호지화 (양 문): 200만원
  4. 감 실 (도 자 기): 100만원
  5. 강 론 대 (도 자 기): 100만원
  6. 기 타 : 뜻대로

성화동 성당  
문의전화 (0658) 841-9713  
(사무실), 51-5340(사제관)

삼오건축자재상사

목재 · 합판 · 내장재  
가설재 · 스킨로폴 · 스투트  
대여목재 · 판넬  
대표 김 기 완  
전주시 원산구 호지동 1가 369-13  
(유진 지하맨션아파트 옆)  
☎ 224-3535 ~ 6

주교님 귀국 인사

“미주지역 사목 방문을 다녀와서”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지난 4월 2일에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속에서 출발했던 미주지역 사목 방문을 마치고 약 두 달 만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구 소속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서는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페루에 가 계신 세 분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참으로 성실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그 신부님들과 연락을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분들의 활동에 협조해주신 분들, 신부님들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의약품을 기증해주신 분들, 신부님들의 활동을 위해서 큰 성의를 표시해주신 분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구를 떠나 있는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마음을 모아 대처해주신 신부님들과 수도자들과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 구 소 식

1. 축! 견진: 6월15일(토) 오후2시30분 영등동 성당, 16일 오전10시 교창 성당.
  2. 혼인 법원: 6월10일(월) 오전10시 교구청.
  3. 본당 사목회장, 부회장, 교구단위 단체장 연수: 6월15일(토)-16일 천호 피정의 집, 참가비-20,000원, 출발-15일 오후4시 가톨릭센터.
  4. 초등부 교리교사 하계 연수: 6월24일-27일 송광 제2야영장.
  5.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11일(화) 10시30분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6. M.E. 주말 소개모임: 6월15일(토) 오후3시 교구청 별관 3층 M.E. 사무실.
  7. 전주교구 J.O.C. 선배 60-80년대 만남의 날: 6월16일 오후7시 교구청 별관 소강당.
- ※ 축! 영명: 11일(성바르나바) 박영규 신부님, 13일(성안토니오) 권영균, 양재철 신부님.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수녀화 } 총판매장(공정직영)  
아동화·특수화 }  
김 문 식 (베드로)  
☎ 82-3118  
풍남문, 종로, 송악로 사거리

신선한 생맥주와 함께 생활의  
멋과 여유를 찾으십시오.

카이저호프

\*아라바이트생 모집 (신자 환영)  
☎ 85-8801  
(한성여관 사거리)

황수경산부인과

아 의 사 황수경 (크리스티나)  
산부인과전문의 이 승 렬 (엘 리 아)  
관동로 서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정 노송남

- ※ 오늘은 겹뜨전 난민들을 위한 2차헌금 있음.
1. 첫 영성체 교리: 11일부터 매주 화·수·목·금 주4시30분.
  2. 꾸리아: 오늘 후2시.
  3. 자모회: 11일 전10시30분.
  4. 부녀회 상임위원회: 12일 어머니미사 후.
  5. 반희정 모임: 13일 전10시30분.
  6. 재속 형제회: 15일 후2시.
  7. 4월13일에 영세하신분 모임: 16일 후2시.
  8. 제대위 청소기 기증: 구세주 모친Pr 감사합니다.
  9. 금주 청소: 중노2가 6·7반; 차주청소: 중노2가 8·9반.

**\* 복지**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꾸리아: 오늘 오후2시.
  2.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후.
  3.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후.
  4. L, M 목의행사: 11일(화) 오전9:30분, 장소-관촌 사선대, 춘비물-미사도구, 도시락.
  5. 안나회: 13일(목) 오전10시.
  6. 성우회: 16일 공식미사후.
- 성당청소(15일): 구세주의 모친Pr. 일치의 모후Pr.  
금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봉헌-강기연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정현자 독서·봉헌-최재홍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20,350원 □ 교무금: 975,15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 오늘은 연중제10주일입니다.
1. 모임: 청년회·성가정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2. 성서읽기: 루가 1장~8장.
  3. 청소봉사: 신비로운 장미.
  4. 감사: 어린이 놀이방 책장기증-성가정회.
  5. 금주 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 최현규 ② 김금자  
봉헌-남장욱, 김성진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 이옥동 ② 송정자  
봉헌-오철규, 하태중씨 부부
  6. 빈미사: 13일(목)-5구역5반(내어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 겹뜨전 난민 위한 2차 헌금 있음.
- ※ 오늘은 연중제10주일! (6월은 예수성심성월!).
1. 회의: ① 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2시  
② 성심회-6월13일(목) 후2시.
  2. 모임: ① 울뜨레아-6월12일(수) 오후8시  
목요일 오후8시, ② 전례부-다음주
  3. 알림: ① 교적정리-서학동 본당관할로 이사오신 신자께서는 교적을 전입해주시고, 타본당으로 가신분은 바로 전출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웃에 있는 신자의 관심을 바랍니다). ② 6월 12일(수) 저녁미사없고 새벽미사 있음(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예비자를 인도합니다-7월부터 예수성탄날교리를 실시하오니 하느님의 자녀를 인도하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01,160원 □ 교무금: 616,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 예수성심 성월.
1. 일요일 교리반 개설: 매주 일요일 오전9시.
  2. 수의 판매합니다: 애명분과 (연락: 전골룸바 자매님 84-0481).
  3. 도서대출: 매주 공식미사후 4교리실.
  4. 청소봉사: 서완산동 2가 서편.
  5. 공식미사 후 헌혈 있습니다.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명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1. 겹뜨전 난민들을 위한 2차헌금 있음.
2. 자모회: 오늘 오전10시.
3. 시목회: 오늘 공식미사후.
4. 구역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7시.
5. 반기도회: 11일-14일, 11일: 전동6반, 12일: 동교7반, 13일: 남노1반, 14일: 경원동.
6. 든보스교회: 12일(수) 저녁7시30분.
7. 구역반장회의: 13일(목) 오전11시.
8. 농산물 직거래 신청: 사무실.
9. 신자전화주소록 발간예정: 변경된 전화나 구역반 및 주소는 사무실에 연락.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택

- ※ 오늘은 겹뜨전 난민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1. 축! 첫 영성체: 면접-14일 후5시, 세례식-15일 후3시30분, 영성체-16일 공식미사, 축하연-미사후 부모님의 협조바람.
  2. 교적없는 교우와 쉬는교우 방문: 11일-6구역, 13일-7구역.
  3.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전10시와 후8시(비스 전9시30분).
  4. 사목회정단 연수: 15일 4시~16일 5시, 장소-천호 피정의 집.
  5. 회의: 자모회-어머니미사 후, 청년회-다음주일 후5시30분.
  6. 제대회 월례미사: 14일 후3시, 새로운 회원을 환영합니다.
  7. 성령 기도회: 11일 후7시30분, 매주 화요일을 잊지 않습니다.
  8. 교도소 미사: 12일 후2시, 매주 수요일 마다 있습니다.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후.
2. 반모임: 11일(화) 오전10시30분-화산2가(B), 오후2시30분-평화·성원, 오후8시30분-동남삼정2.  
12일(수) 오전10시30분-금화·송원, 오후2시30분-화산2가(A).
3. 본당 사목회정단 연수: 15일(토) 오후4시, 센터길점.
4.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신자된 의무입니다. 쉬고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인도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5. 청소봉사: 은총의 증개자Pr.
6. 금주 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김인실·조재용  
차주 전례: 최정순 독서·봉헌-형공일·윤장호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수현  
사목회장 황수석

-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기도서 21면).
1. 예비자 성탄년 교리시간 안내: ① 일요일 09:30분 ② 목요일 10:30분 ③ 금요일 오후8시. ※예비자를 적극적으로 인도합니다.
  2. 가정방문: 계시관 참조. 3. 형제회 미사: 계시관참조.
  4. 모임안내: ① 울뜨레아-오늘 11시미사후(교육관) ② 글라라회-수 10:30분 ③ 모니카회, 테레사회-다음주 수 10:30.
  5. 주일을 거룩히 지냅니다.
  6. 신태인 성당을 돕기위한 토종닭판매: (오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7. 성당주변에 쓰레기나 담배꽂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25,950원 □ 교무금: 1,576,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1. 울뜨레아: 공식미사후.
  2. 성모·자모회: 14일(금) 10시미사후.
  3. 공소미사: 14일(금) 오후2시 둘째 저녁8시 이서.
  4. 빈미사: 11일(화) 저녁8시 동원, 12일(수) 원진, 13일(목) 신봉.
  5. 빈모임: 11일(화) 오전10시 환신1, 후2시 신리.  
차주 모임: 사목회.
- 금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 함계영 ② 홍성경  
기도① 김창선 ② 이규연  
차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 임한영 ② 홍영란  
기도① 조규명 ② 안귀배.